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통시적 변화

- 말뭉치 언어학적 접근 -

안예리

Abstract

An, Yelee. 2013. 02. Historical Analysis of X-hada Verbs: Corpus Linguistics Approach. *Korean Linguistics* 58, 107-133. This paper analyzed the use of *X-hada* verbs, which had Sino-Korean base X, using the 21st Sejong Historical Corpus. 88% of them are no longer used and we examined how and why this sudden and dramatic change had happened. Most of *X-hada* verbs in SHC were homonyms and we argued that these homonymous relations caused the extinction of most of *X-hada* verbs in the process of the linguistic vernacularization..

주제어: X-하다(X-hada), 한자어(Sino-Korean words), 말뭉치(corpus), 동음이의어(homonym), 어휘(vocabulary)

1. 서론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 시기에 광범위하게 쓰이던 ‘覺하다, 食하다, 現하다’ 등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 중 상당수는 현대 국어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 김형철(1997:63)에서 역사 자료에 나타난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이 한문의 영향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이들 용언은 언해 과정에서 한문 원문에 쓰인 한자에 ‘하다’를 결합시킨 결과였다. 한문의 영향으로 생겨난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은 우리말 문장이 한문의 영향을 벗어나게 되면서 대부분 사라졌다. 한영균(2008)은 “文體의 現代性を 판단하는 중요한 準據의 하나(한영균, 2008:229)”로서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쓰임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의 논의는 근대 계몽기 말뭉치와 현대 국어 말뭉치에 나타난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을 대상으로 전체 텍스트 안에서의 점유율(사용률)과 종수 등을 비교해,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이 국한 혼용 문체의 현대성을 판단하는 주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에 이어 한영균(2009)는 189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후반에 걸친 쓰임을 조사하고 당시에 쓰인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 중 오늘날까지 쓰이는 것은 대체로 대응되는 고유어가 없는 경우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앞선 연구를 통해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이 문체사적으로 갖는 중요성이 확인되었지만 여전히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쓰임에 대해서는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정작 해당 용언들이 두드러진 쓰임을 보이던 15~19세기 사이의 쓰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또한 문체의 현대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쓰임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앞선 연구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몇 가지 점을 보완해 보고자 한다.

첫째, 15~19세기 문헌에 쓰인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 중 어떤 것이 사라졌고 어떤 것이 현대 국어에 남아 있는지, 사라진 용언과 남아 있는 용언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밝혀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전체적 그림을 그려 보려고 한다.

둘째, 문체의 현대화 과정에서 수많은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이 사라졌지만, ‘인(因)하다, 의(依)하다, 합(合)하다, 위(爲)하다’ 등 일부는 지금도 널리 쓰인다. 한영균(2009)의 주장처럼 이들 용언 중에는 대응되는 고유어가 없는 것이 많다. 하지만 남은 용언뿐 아니라 사라진 용언의 목록까지 고려해 보면, 대응 고유어의 존재 여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일단 15~19세기 문헌에 쓰인 수천 개의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 중에는 대응되는 고유어를 상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어기의 음이 ‘성’인 용언들을 살펴보면 ‘城하다, 性하다, 成하다, 盛하다, 省하다, 聖하다, 聲하다, 誠하다, 駢하다’ 등이 있는데, 이들 중 뚜렷하게 대응되는 고유어가 있는 경우는 ‘成하다-이루다’, ‘盛하다-많다’, ‘省하다-살피다’ 정도이다. 그런데 이들 중 현대 국어에서 쓰이는 유일한 용언은 대응 고유어가 있는 ‘盛하다’이다. 또한 ‘告하다(알리다), 變하다(바뀌다), 願하다(바라다)’ 등의 용언 역시 대응 고유어가 있는데도 현대 국어에서 쓰이고 있다. 따라서 대응 고유어의 존재 여부만으로는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통시적 변화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또한 ‘有하다’는 ‘있다’, ‘無하다’는 ‘없다’와 같이 대응 고유어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의미가 유사하기는 해도 일대일로 치환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응 고유어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역사적 변화의 전반적 양상을 보다 포괄적이면서도 명쾌하게 설명할 있는 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셋째, 수백 년간 광범위하게 쓰이던 이들 용언류가 한 세기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사라진 데에는 분명히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 변화는 앞선 연구의 지적처럼 문체의 현대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급격한 소멸이 작가나 문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용을 기피했기 때문에, 혹은 이를 고유어로 바꾸어 쓰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초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체의 현대화는 분명히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변화에 영향을 끼쳤지만 이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배경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문체의 현대화라는 언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특별히 이들 용언류의 소멸을 불가피하게 했던 인지적인 요인을 밝혀 보고자 한다. 즉, 문체의 현대화라는 언어 문화적 배경과 실제 언어 현상의 변화 사이에는 이 둘을 연결시키는 제3의

인지적 원리가 작용했다는 것이 이 글의 관점이다.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15~19세기 문헌 자료를 전자화된 형태로 가공한 <21세기 세종 역사 말뭉치(이하 세종)>를¹⁾ 분석해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 자료에 나타난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역사적 쓰임을 개괄하고 변화 과정을 추적해 보려고 한다. <세종>에 포함된 15~19세기 자료에서 ‘깜짝새(SynKDP)’ 프로그램을²⁾ 사용해 추출한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용례 수(token)는 95,252, 종수(type)는 2,441이었다³⁾.

이어지는 2장에서는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역사적 쓰임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3장에서는 동음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이 현대 국어로 오며 대거 사라진 이유를 규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의 과도기적 단계를 보여주는 20세기 초기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3장의 계량적 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론을 질적 분석의 결과와 비교해 보겠다.

2.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역사적 쓰임 개관

이 장에서는 말뭉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역사적 쓰임을 기술하고 3장과 4장에서 풀어갈 몇몇 의문점을 정리해 보겠다.

<세종>의 15~19세기 자료에는 모두 2,441종(type)의 ‘1음절 한자어

1) <세종>의 말뭉치 구성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2007)을 참조.

2) 통합형 한글 자료 처리기(Synthesized Korean Data Processor) 깜짝새(SynKDP)는 전주대 소강춘 교수팀(소강춘, 김진규, 박진양)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음소·음절·어절 단위의 빈도 추출, 현대어 및 고어 검색, 어휘 색인 작성 등의 기능이 있다. 깜짝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강춘(2002)를 참조.

3) 용례 추출 시에는 ‘變하다’와 같은 국한 혼용 표기와 ‘변하다’와 같은 한글 표기, ‘變코/변코’와 같이 축약된 형태로 쓴 것을 모두 포함하였고, 조건식을 이용해 ‘變하다, 변히, 변히고, 변흔’ 등 용언의 활용 꼴을 모두 추출하였다.

+하다’ 용언이 쓰였다. 그 중 2,138종은 사라졌고 303종만 현재까지 그 쓰임을 유지하고 있다. 즉, 역사 자료에 쓰인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 중 88%는 사라졌고 12%만이 현대 국어의 어휘 체계에 남아 있는 것이다. 이때 현대 국어에 남아 있는가의 여부는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의 표제어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부분에서 제기되는 첫 번째 의문은 왜 15~19세기 문헌에 쓰였던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 중 88%가 사라졌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사라진 용언 중에는 수백 년간 쓰임을 이어온 것도 상당수였다. <표 1>은 <세종>에 쓰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을 대상으로, 해당 용언들이 역사 자료에서 몇 세기 자료에 나타났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역사 자료에 나타난 총 기간을 1~5세기로 나누고 각 기간별 종수, 세기별 분포 패턴, 각 패턴에 해당하는 용언의 종수를 표시하였다. 세기별 분포 패턴을 표시한 이유는 총 사용 기간이 4세기였다 해도 15~18세기 자료에 나타난 것, 16~19세기 자료에 나타난 것, 15·16세기 자료에 나타났다가 18·19세기 자료에 나타난 것 등 여러 가지 분포 유형이 있었기 때문이다.

<표 1>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세기별 분포

총 기간	종수	백분율	분포 패턴					패턴별	
			15	16	17	18	19	종수	백분율
5세기	66	3%						66	3%
4세기	165	8%						61	3%
								2	0%
								10	0%
								89	4%
								3	0%
3세기	360	17%						8	0%
								16	1%
								1	0%
								9	0%
								3	0%
								1	0%
								269	13%
								12	1%
								28	1%
								13	1%
2세기	436	20%						17	1%
								12	1%
								15	1%
								5	0%
								96	4%
								204	10%
								12	1%
								49	2%
								15	1%
								11	1%
1세기	1111	52%						58	3%
								233	11%
								637	30%
								142	7%
								41	2%
총합	2,138	100%						2,138	100%

위의 표를 보면, <세종>에는 나타났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 중 52%가 총 사용 기간이 1세기에 그쳤다. 즉, 절반 이상이 어느 한 세기에만 잠시 쓰였던 용언들이다. 2세기 이상 쓰인 용언은 표에 나타난 것처럼 분포 패턴이 다양하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위의 표에서 문헌의 출현 시기가 2세기라고 표시된 것 중에도 15·16세기에만 나타난 것과, 15세기에 나타났다가 19세기에 다시 나타난 것은 성격이 다르다. 이는 총 출현 시기가 3~4세기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위의 표에서 2세기 동안 나타난 용언은 20%, 3세기는 17%, 4세기는 8%이지만 분포 시기가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사용 기간은 표에 나타난 것보다 더 길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5세기 동안 계속 문헌에 출현하다가 현대 국어로 오며 사라진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은 모두 66개로 전체 목록의 3%에 해당한다⁴⁾.

이 글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 의문은, 역사 자료에 쓰인 88%의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이 사라졌음에도 왜 12%는 오늘날까지 그 쓰임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표 2>는 <세종>에 나타난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 중 현대 국어에 남아 있는 용언들의 세기별 쓰임을 정리한 것이다. 제시 방식은 <표 1>과 동일하다.

4) 15~19세기 자료에 모두 등장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사라진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假)하다, 개(改)하다, 개(開)하다, 거(擧)하다, 겁(怯)하다, 결(結)하다, 경(經)하다, 계(戒)하다, 교(交)하다, 교(敎)하다, 기(起)하다, 노(老)하다, 도(度)하다, 동(同)하다, 명(明)하다, 문(聞)하다, 미(美)하다, 밀(密)하다, 보(保)하다, 복(伏)하다, 빙(聘)하다, 살(殺)하다, 상(賞)하다, 섭(攝)하다, 섭(涉)하다, 소(消)하다, 손(損)하다, 수(修)하다, 수(受)하다, 수(授)하다, 시(施)하다, 신(信)하다, 실(失)하다, 애(愛)하다, 양(養)하다, 어(御)하다, 언(言)하다, 연(緣)하다, 우(優)하다, 유(流)하다, 익(益)하다, 인(仁)하다, 인(忍)하다, 잔(殘)하다, 장(葬)하다, 장(藏)하다, 저(著)하다, 전(轉)하다, 정(靜)하다, 제(祭)하다, 조(照)하다, 존(尊)하다, 종(從)하다, 주(主)하다, 지(持)하다, 지(止)하다, 지(知)하다, 집(集)하다, 청(淸)하다, 출(出)하다, 탐(耽)하다, 평(平)하다, 한(寒)하다, 향(降)하다, 현(顯)하다, 호(好)하다]

<표 2> 현대 국어에 남아 있는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세기별 분포

총 기간	종수	백분율	분포 패턴					패턴별	
			15	16	17	18	19	종수	백분율
5세기	126	42%						126	42%
4세기	69	22%						22	7%
								1	0%
								6	2%
								33	11%
								7	2%
3세기	36	12%						1	0%
								2	1%
								1	0%
								4	1%
								0	0%
								1	0%
								20	7%
								0	0%
								4	1%
								3	1%
2세기	36	12%						3	1%
								2	1%
								3	1%
								0	0%
								8	3%
								6	2%
								3	1%
								8	3%
								1	0%
								2	1%
1세기	36	12%						2	1%
								8	3%
								12	4%
								8	3%
								6	2%
총합	303	100%						303	100%

위의 표를 보면, 현대 국어에서 여전히 쓰이는 303개의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 중 42%가 15~19세기 동안 줄곧 문헌에 나타났다. 이는 <표 1>에서 5세기 동안 문헌에 나타난 용언이 3%밖에 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3~4세기 동안 문헌에 나타난 것 중에도 분포 시기가 연속적이지 않고 15~17세기와 19세기, 혹은 15, 17, 19세기 문헌에 쓰인 용언들은 실제로는 5세기 동안 계속 쓰임을 유지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42% 이상의 용언이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모든 기간 동안 쓰임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표 1>과 <표 2>를 비교해 보면, 역사적으로 사용된 기간이 길수록 현대 국어에 남은 비율이 높고, 사용된 기간이 짧을수록 사라진 비율이 높다. 하지만 5세기 동안 계속 쓰인 용언 중에도 현대 국어에 와서 사라진 것이 있고, 1세기 동안만 사용됐던 용언 중에도 현대 국어에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용 기간 외에도 다른 변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왜 수많은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들이 현대 국어에 와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도 왜 특정 용언들은 쓰임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3.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동음이의 관계

15~19세기 자료에 나타난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목록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동음이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즉, ‘亡하다, 妄하다, 忘하다, 望하다, 罔하다, 𣵵하다’처럼 어기의 한자는 제각기 다르지만 한자음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종>에 쓰인 2,441종의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 중 동음이의 관계를 이루는 용언은 2,379종으로 전체 목록의 97%에 달했다.

한자 ‘X’를 어기로 삼는 ‘X하다’ 꼴의 용언 중 ‘X’의 한자음이 동일한 용언들은 한글로 표기하면 서로 변별이 되지 않는다. 문체의 현

대화 과정에서 순한글 글쓰기 환경이 확대되면서 이들 용언의 동음이의 관계는 의미 변별에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형태가 같아 의미 변별이 어려워졌다는 점이 ‘1음절 한자어+하다’류의 용언이 급격히 사라진 원인이었다는 것이 이 글의 가설이다. 이 장의 남은 부분에서는 말뭉치 분석 결과를 면밀히 살펴 이러한 가설을 검증해 보려고 한다.

아래의 예문은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 자료에 쓰인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 중에 어기의 음이 ‘중’인 예를 제시한 것이다.

- (1) a. 眞理入 훈 마스 더움 업스며 더룸 업스니 엇데 구티여 宗호료
<1465원각경,02,상2,1:104a>
- b. 長者ㅣ 그 마를 從호야 金 四千斤을 내야 王씨와 比丘씨와 받즈
븃니라<1459월인석,08,095a>
- c. 卽時에 如來ㅣ 羅篋羅를 勅호샤 鐘호 소리를 티라 호시고…
<1461능엄언04,125a>
- d. 許子는 반드시 粟을 種호 後에 食호느냐<1590맹자초,05,019b>
- e. 介஁이 石 곧거니 엇디 뼈 日을 終호리오<15??주역언,06,019a>
- f. …그 數를 錯호며 綜호야 그 變을 通호야 드디여 天地잇 文을 成
호며…<15??주역언,05,025b>
- g. 미일 아춤이 머리 비서 縱호고 빈혀 고자 섬 아래 가 절호고…
<1586소학언,06,026b>
- h. 門에 踵호야 文公씨 告호야 곁오디…<1590맹자초,05,017a>
- i. 이논 홀로 스랑을 妾婦의게 鍾호고 賢을 簡호고 禮를 브리미니…
<1736,여사서,4,056b>
- j. 또호 和호 羹이 이피 戒호며 이피 平호거늘 醜호야 假஁애 言이
업서 時에 爭호리 잇디 아니 호니…<16??시경해,20,020a>

<세종>에 쓰인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 중 어기의 음이 ‘중’인 용언은 위의 예문에 제시된 대로 ‘중(宗)하다, 중(從)하다, 중(種)하다, 중(終)하다, 중(綜)하다, 중(縱)하다, 중(踵)하다, 중(鍾)하다, 중(鐘)하

다, 종(龕)하다’의 총 10가지였다. 위의 예문에서 이들 용언의 의미가 변별되는 것은 해당 용언의 어기가 한자로 쓰였기 때문이다. 만약 어기를 한자로 쓰지 않고 ‘중하다’와 같이 한글로 표기한다면, 일부는 문맥을 통해 추론이 가능할지라도 대개는 정확히 어느 한자에 해당하는지를 금방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⁵⁾.

물론 중세 국어나 근대 국어 시기에는 이를 한자로 표기했기 때문에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현대 국어로 오면서 표기 방식이 국한 혼용에서 한글 전용으로 바뀌게 되자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역사 자료에 쓰인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 중에는 동음이의어가 20개 이상 존재하던 것도 상당수였고, 발음이 ‘유하다’인 용언들은 동음이의의 관계를 이루는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수가 44개나 됐다. 하지만 동음이의의 관계가 복잡했다고 해서 현대 국어에서 무조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동음이의어 관계에 있던 2,379종의 용언 중 12%에 해당하는 284종은 현대 국어에서 그 쓰임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동음이의어가 존재했던 용언 중 현대 국어에까지 남은 용언이 있다고 해서 이 글의 가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순한글로 쓴다고 해도 음이 같은 다른 ‘X하다’ 용언으로 오인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쓰임이 굳어져 있던 용언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쓰임이 굳어져 있었다는 말의 의미는, 해당 용언들이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다른 용언들에 비해 사용된 기간이 길고 역사 자료에 출현한 빈도가 월등히 높았다는 것이다.

5) 익명의 심사자께서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들의 동음이의의 관계를 살펴볼 때 성조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셨다. (1)에 제시된 용언들도 성조에 따라 구별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종>에 포함된 자료 중 일부 15세기 자료에는 성조 표시가 있지만 나머지 자료에는 성조 표시가 없다. 일부 용언에 대해서만 성조를 고려하는 것은 일관성이 떨어지고, 중세 국어 자료에 나타난 모든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에 대해 성조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다.

아래의 표는 역사적으로 동음이의 관계에 있던 용언 중 일부가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동음이의어군의 빈도를 비교한 것이다.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20위까지의 목록을 보이고 각각의 빈도, 동음이의 관계에 있던 다른 용언의 목록과 빈도, 세기별 분포를 표시하였다. 현대 국어에 남은 용언이 둘 이상인 경우는 그 중 빈도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다. 현대 국어에 남아 있다는 판단은 『표준』의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표준』 등재 단어 중에도 실제로 널리 쓰이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단어 앞에는 별표(*)를 달아 두었다.

<표 3> 동음이의 관계의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 간 빈도 비교

순위	남은 용언	빈도	동음이의 관계의 사라진 용언 목록(빈도)	15	16	17	18	19
1	위(爲)하다	4,317	違하다(37), 危하다(19), 威하다(14), 位하다(12), 慰하다(11), 委하다(6), 謂하다(4), 慰하다(4), 餒하다(2), 衛하다(2), 薦하다(2), 尉하다(1), 痿하다(1), 煒하다(1), 僞하다(1)	○	○	○	○	○
2	행(行)하다	3,858	幸하다(7)	○	○	○	○	○
3	인(因)하다	3,018	仁하다(111), 印하다(30), 引하다(27), 忍하다(10), 認하다(5), 訖하다(4), 禪하다(2), 紉하다(1), 牒하다(1), 咽하다(1), 刃하다(1), 人하다(1)	○	○	○	○	○
	*인(吝)하다	31			○		○	○
4	청(請)하다	2,719	聽하다(40), 淸하다(27), 廳하다(4), 靑하다(1), 菁하다(1)	○	○	○	○	○
5	정(定)하다	1,386	貞하다(139), 靜하다(71), 征하다(64), 整하다(13), 靖하다(7), 政하다(4), 情하다(3),	○	○	○	○	○
	*정(正)하다	457		○	○	○	○	○

	*정(淨)하다	107	庭하다(2), 蟬하다(1), 頂하다(1), 旌하다(1), 井하다(1), 丁하다(1)	○			○	
	*정(精)하다	100		○	○	○	○	○
	*정(呈)하다	12		○		○	○	
6	당(當)하다	1,345	黨하다(3)	○	○	○	○	○
7	향(向)하다	1,268	享하다(26), 嚮하다(14), 鄉하다(9), 饗하다(5), 香하다(3), 餉하다(2), 響하다(2)	○	○	○	○	○
8	명(命)하다	1,230	明하다(99), 鳴하다(33), 冥하다(5)	○	○	○	○	○
	명(名)하다	19		○	○	○	○	○
9	원(願)하다	1,224	圓하다(51), 遠하다(43), 元하다(29), 援하다(18), 原하다(5), 垣하다(2), 員하다(2), 苑하다(1)	○	○	○	○	○
	*원(怨)하다	40		○	○	○	○	○
10	취(取)하다	1,221	就하다(41), 聚하다(18), 吹하다(5), 驟하다(1)	○	○	○	○	○
	취(醉)하다	578		○	○	○	○	○
	취(娶)하다	33		○	○	○	○	
11	전(傳)하다	1,155	轉하다(63), 專하다(37), 戰하다(22), 顛하다(9), 田하다(9), 塵하다(6), 錢하다(3), 煎하다(3), 癩하다(2), 輓하다(2), 詮하다(2), 甸하다(2), 殿하다(2), 全하다(2), 靦하다(1), 遭하다(1), 翦하다(1), 篆하다(1), 奠하다(1), 填하다(1), 前하다(1), 典하다(1), 佃하다(1)	○	○	○	○	○
12	고(告)하다	1,151	美하다(37), 考하다(22), 顧하다(21), 鼓하다(20), 固하다(17), 鼓하다(17), 高하다(16), 孤하다(10), 苦하다(8), 沽하다(7), 叩하다(5), 膏하다(4), 翺하다(3), 枯하다(2), 槁하다(2), 壘하다(2), 囊하다(2), 鹽하다(2), 呱하다(1), 稿하다(1),	○	○	○	○	○
	*고(誥)하다	2			○	○		

			刳하다(1), 瞽하다(1), 酤하다(1), 靠하다(1)					
13	발(發)하다	921	拔하다(7), 跋하다(3), 撥하다(2), 輓하다(1), 芴하다(1)	○	○	○	○	○
14	권(勸)하다	891	倦하다(30), 權하다(8), 卷하다(5), 睮하다(1), 髡하다(1)	○	○	○	○	○
15	면(免)하다	883	勉하다(6), 冕하다(3), 漚하다(2)	○	○	○	○	○
	면(面)하다	18			○	○		
16	대(對)하다	877	大하다(61), 待하다(25), 帶하다(19), 懟하다(3), 隊하다(3), 戴하다(2), 貸하다(1)	○	○	○	○	○
	*대(代)하다	43		○	○	○	○	○
17	상(傷)하다	849	喪하다(53), 上하다(40), 相하다(37), 象하다(24), 賞하다(23), 想하다(16), 嘗하다(7), 翔하다(6), 祥하다(6), 像하다(4), 爽하다(3), 常하다(3), 償하다(3), 詳하다(2), 裳하다(2), 桑하다(2), 商하다(2), 霜하다(1)	○	○	○	○	○
	*상(尙)하다	41			○	○	○	○
18	피(避)하다	815	辟하다(82), 被하다(6), 疲하다(4), 諛하다(1), 披하다(1)	○	○	○	○	○
19	멸(滅)하다	806	蔑하다(6)	○	○	○	○	○
20	중(重)하다	790	中하다(72), 衆하다(7)	○	○	○	○	○

위의 표에는 동음이의어 중 현대 국어에 하나만 남은 유형과 둘 이상 남은 유형이 모두 포함돼 있다. 역사 자료에 쓰인 동음이의어 중 현대 국어에 하나만 그 쓰임을 유지하고 있는 용언에는 ‘위(爲)하다, 행(行)하다, 청(請)하다, 당(當)하다, 향(向)하다, 전(傳)하다, 발(發)하다, 권(勸)하다, 피(避)하다, 멸(滅)하다, 중(重)하다’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동음이의어군 중에서 빈도가 가장 높았고 15~19세기 자료에 두루 쓰였다. 특히, 이들 용언은 문헌상의 출현 빈도가 동음이의어군의 다른 용언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예를 들어 ‘위(爲)하다’는 다

른 15개의 용언과 동음이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빈도 차이가 100배가 넘을 만큼 역사 자료에서의 쓰임이 두드러졌다. ‘행(行)하다’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던 용언은 하나뿐이었는데, 둘 사이의 빈도 차이는 500배가 훨씬 넘는다.

<표 3>에 제시된 목록 중에는 동음이의 관계를 이루던 용언 중 둘 이상이 남은 경우도 있다. 그 중에는 최고빈도 용언은 오늘날에도 널리 쓰이지만 나머지는 『표준』에 등재돼 있을 뿐 실제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⁶⁾. ‘인(因)하다’와 ‘인(吝)하다’ 중 전자는 널리 쓰이지만, ‘인색하다’라는 뜻의 ‘인(吝)하다’는 지금은 널리 쓰이지 않는다. ‘정하다’류의 경우, ‘정(定)하다’, ‘정(呈)하다’는 동사이고 ‘정(正)하다’, ‘정(淨)하다’, ‘정(精)하다’는 형용사이다. 동사의 경우, ‘정(定)’하다는 현대 국어에서 널리 쓰이지만, 사전에 ‘어떤 모양이나 빛깔 따위를 나타내다’ 혹은 ‘원서 따위를 제출하다’라는 뜻으로 정의된 ‘정(呈)하다’는 거의 사라진 말이다. 형용사의 경우 ‘정(正)하다’는 ‘정한 이치’라는 표현에서는 쓰이지만 일반적인 형용사처럼 ‘NP가 정하다’로는 잘 쓰이지 않아 현대 국어에서 그 쓰임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정(淨)하다’는 고유어 ‘깨끗하다’로, ‘정(精)하다’는 고유어 ‘곱다’나 ‘가지런하다’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세 형용사 모두 현대 국어에서 활발히 쓰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願)하다’와 ‘원(怨)하다’ 중 전자는 널리 쓰이지만 후자는 주로 ‘원망하다’로 쓰인다. ‘고(告)하다’와 ‘고(誥)하다’ 중 전자는 널리 쓰이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가르쳐 알리다’라는 뜻의 후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대

6) 이 연구에서 현대 국어에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표준』을 따랐지만 『표준』에 등재된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 중에는 본문에서 언급한 ‘인(吝)하다’ 등과 같이 오늘날 널리 쓰이지 않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을 기준으로 삼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개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사용 여부에 대한 직관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직관을 기준으로 연구 대상을 정하는 것보다 공신력 있는 사전을 근거로 하는 것이 보다 신뢰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해 『표준』을 따랐다.

(對)하다’와 ‘대(代)하다’ 중 전자는 널리 쓰이지만 후자는 주로 ‘대신하다’로 쓰인다. ‘상(傷)하다’와 ‘상(尙)하다’ 중 전자는 널리 쓰이지만 ‘공주나 왕자를 결혼시키다’라는 뜻의 후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단에서 언급한 용언들은 사실상 최고빈도 용언 하나만 현대 국어에서 확고히 쓰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에서 동음이의 관계를 이루던 용언 중 둘 이상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용언들이 모두 현대 국어에 널리 쓰이는 것도 있다. 그런데 이들 용언은 대개 통사적 차이가 뚜렷해 동음이의어라도 문맥을 통해 의미 변별이 용이하다. ‘명(命)하다’와 ‘명(名)하다’가 둘 다 ‘명하다’로 표기되어도, 주로 전자는 ‘~에/에게 ~을’로, 후자는 ‘~를 ~로’로 쓰인다. ‘취(取)하다’, ‘취(醉)하다’, ‘취(娶)하다’에서 타동사인 ‘취(取)하다’는 ‘~에서(에게서) ~를’이나 ‘~를’로 쓰이고, 자동사인 ‘취(醉)하다’는 ‘~에’로 쓰여 격틀로 변별이 된다. ‘취(娶)하다’는 주로 ‘~를’로 쓰여 ‘취(取)하다’와 격틀이 같지만, ‘장가들어 아내를 맞아들이다’의 의미로 논항에 특정한 명사만 나타나기 때문에 역시 의미 변별에는 문제가 없다. ‘면(免)하다’와 ‘면(面)하다’는 둘 다 ‘면하다’로 쓰여도, 타동사인 전자는 주로 ‘~을’로 쓰이고 자동사인 후자는 ‘~에’로 쓰이기 때문에 의미가 쉽게 구별된다. 이처럼 동음이의 관계를 이루던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 중 둘 이상이 현대 국어에서 활발히 쓰이는 경우, 해당 용언들은 자·타동의 어휘 범주나 통사 구조가 서로 변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 하나만 놓고 보면 음이 같아 구별할 수 없지만 문장 안에서는 의미 해석에 문제가 없다. 위의 표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동음이의어 중 둘 이상이 남은 용언에는 ‘가(加)하다’와 ‘가(可)하다’, ‘과(科)하다’와 ‘과(過)하다’, ‘연(連)하다’와 ‘연(軟)하다’ 등과 같이 동사와 형용사로 어휘 범주가 다른 예도 있었다. 이들 역시 통사 구조가 변별적이기 때문에 의미 파악에는 어려움이 없다).

지금까지 <세종>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계량적 관점에서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기술하고 변화의 원인을 알아보았다. 역사 자료에 쓰인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은 대부분 복잡한 동음이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현대 국어로 오면서 한자를 사용하지 않게 되자 서로 간의 의미를 구별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대부분 사멸된 것으로 보인다. 동음이의 관계에 있던 용언들 중 하나가 지금까지 쓰이는 것은, 해당 용언이 여타의 동음이의어에 비해 유독 사용 기간이 길고 빈도가 높은 경우였다. 둘 이상이 남은 경우는 어휘 범주나 격들의 차이, 논항의 특성으로 인해 동음이의어 간에 의미 변별이 용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연구는 ‘1음절 한자어+하다’류 어휘 전체에 나타난 통시적 변화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개개 용언의 어휘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문에서의 한자의 기능 차이나 ‘2음절 한자어+하다’ 및 고유어 용언과의 경쟁 관계 등을 면밀히 기술한다면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예외적 현상들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4. 근대 계몽기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쓰임

2~3장의 논의를 통해 15~19세기 자료에 나타난 ‘1음절 한자어+하

7) 익명의 심사자께서 동음이의어군 중 하나만 현대 국어에 남은 경우에도 동음이의어 간에 격들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들은 왜 격들로 변별이 되는데도 사라졌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셨다. 분석 결과를 볼 때 전반적으로는 동음이의어군 안에서 상대적으로 빈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는 아무리 격들로 변별이 된다 해도 현대 국어까지 쓰임을 유지하지 못한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명(名)하다’나 ‘면(面)하다’는 각각의 동음이의어군 안에서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는데도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다. 이런 부분은 예외적 현상으로, 개별 어휘사적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1음절 한자어+하다’류 용언 전체에 나타난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개개의 어휘사에 대해서는 세밀히 살피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둔다.

다’ 용언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해당 용언들 중 상당수가 현대 국어로 오며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근대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 넘어오는 20세기 초기 자료에는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이 어떤 쓰임을 보였을까? 20세기 초기에는 표기 방식을 비롯한 어문 생활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문체의 현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변화상을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1907~1910년에 발행된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과 순한글판에 나타난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국한문판과 순한글판이 일종의 대역 관계를 이룬 경우, 즉 국한문판의 논설이 한글로 작성돼 순한글판에 같은 내용으로 실린 경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매일신보』는 초기(1904/07/18~1905/03/10)에는 4면은 영문, 2면은 순한글인 한영문판을 발행하다가 국한문판과 영문판으로 편집 체제를 바꾸었다(1905/08/11~1907/05/22). 그러다 1907년 5월 23일자부터 폐간 시까지는 국한문판, 영문판, 순한글판의 세 가지 표기체로 발행하였다.

영문판은 논외로 하고 국한문판과 순한글판을 살펴보면, 국한문판은 지식층을, 순한글판은 한자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들을 주요 독자로 삼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한문판과 순한글판은 표기 방식만 달랐던 게 아니라 대상 독자와 기사의 수준 및 내용도 달랐다. 하지만 때때로 국한문판과 순한글판에 내용이 같은 기사가 실리기도 했는데, 이 경우 국한문판 기사를 먼저 쓴 뒤 이를 순한글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대한매일신보의 현황”이라는 통감부 문서 202호(1908년 5월 27일)를 보면, 국한문판, 순한글판, 영문판 각각의 담당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국한문판 논설은 신채호가, 순한글판 ‘논설 번역’은 김연창이 담당했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이다(안예리, 2010). 따라서 이

러한 국한문판·순한글판 대응 기사를 분석해 보면, 국한문판에 쓰인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이 순한글판에 어떻게 옮겨졌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분석 대상 기사 10쌍의 분량은 약 2,700어절로, 말뭉치 분석 규모로서는 매우 적은 양이다. 따라서 이 장의 분석은 1:1 대역 텍스트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가 아니라 케이스 스터디의 성격을 가짐을 밝혀 둔다. 분석 대상 논설 기사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2) 분석 대상 논설 기사의 발행일, 국한문판 제목, 순한글판 제목

- ① 1907년 9월 18일, 地方困難, 디방의 곤난
- ② 1908년 5월 16일, 學界의 花, 학계의 꽃
- ③ 1908년 7월 9일, 志氣 鄙悖하면 天才何爲, 지기가 비루하면 천성 지도가 잇슨들 무엇홀고
- ④ 1908년 8월 5일, 名節書感, 명절
- ⑤ 1908년 10월 17일, 韓國의 十二活佛, 한국에 열두 활불
- ⑥ 1909년 2월 3일, 社會의 中軸, 사회의 중심
- ⑦ 1909년 6월 5일, 自由神의 飛○時代, 자유의 신령이 활동하는 시대
- ⑧ 1909년 7월 2일, 競爭은 生存의 機, 경쟁은 생존의 기관
- ⑨ 1909년 12월 8일, 再告韓國同胞, 두번 한국 동포에게 고하노라
- ⑩ 1910년 8월 9일, 大韓의 過渡時代, 대한의 과도시대

10개의 국한문판 논설에 나타난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용례 수는(token) 모두 298개였다. ‘行하다’가 ‘행하다’로 바뀐 것처럼 국한문판에 쓰인 ‘1음절 한자어+하다’가 순한글판에서 그대로 쓰인 예는 18개(6%)였고, 나머지 94%에 해당하는 280개의 예에서는 모두 다른 단어로 대체되었다. 다음은 대응 관계에 있는 국한문과 순한글 기사에서 일부 문장을 뽑은 것이다.

- (3) a. 국한문: 衆生을 導으며 慈航으로 衆生을 濟으며 樂園으로 衆生을 養으며 衆生이 飢커던 食을 與하며 衆生이 渴커던 水를 與하며 衆生이 病커던 藥을 與하나니...

<1909년 6월 5일자 국한문판 논설>

- a'. 순한글: 중생을 인도하며 중생을 구제하며 중생을 양육하야 중생이 주리거든 밥을 주며 중생이 목마르거든 물을 주며 중생이 병들거든 약을 주느니... <1909년 6월 5일자 순한글판 논설>

- b. 국한문: 蔽一言하고 彼 一進會는 韓國이 一寸이라도 餘하면 一寸을 減하며 韓民이 壹個라도 餘하면 壹個를 殺하라 하나니 同胞同胞아 知는가 否는가 生었는가 死었는가

<1909년 12월 8일 국한문판 논설>

- b'. 순한글: 폐일언하고 더 일진회는 한국이 헛치만 늘어도 헛치를 덜하고 한인이 일개만 늘어도 일개를 죽이고져 하느니 동포들아 아는가 모르는가 살었는가 죽었는가

<1909년 12월 8일 순한글판 논설>

위의 예에 나타난 것처럼, 국한문판의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은 순한글판에서 대략 네 가지 대응 양상을 보였다. 첫째, ‘減하다’가 ‘덜하다’가 된 것처럼 어기의 한자를 그대로 한자음으로 바꾼 경우, 둘째, ‘與하다’가 ‘주다’가 된 것처럼 의미가 같은 고유어로 바꾼 경우, 셋째, ‘導하다’가 ‘인도(引導)하다’가 된 것처럼 ‘X하다’를 ‘YX하다’ 혹은 ‘XY하다’로 바꾼 경우, 넷째, ‘病하다’가 ‘병들다’가 된 것처럼 다른 표현으로 바꾼 경우이다. 아래의 표는 네 가지 양상별 용례 수와 대표적인 예를 제시한 것이다.

<표 4> 국한문판과 순한글판에서의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사용 양상⁸⁾

유형	용례 수	비율	국한문판	순한글판
그대로	18	6%	告하다 動하다 免하다 滅하다 變하다 屬하다 連하다 爲하다 傳하다 行하다	고하다 동하다 면하다 멸하다 변하다 속하다 연하다 위하다 전하다 행하다
고유어로 바꿈	228	77%	得하다 去하다 見하다 難하다 來하다 冷하다 渡하다 磨하다 受하다 頹하다	얻다 떠나다 보다 어렵다 오다 식다 건너가다 갈다 받다 배호다
2음절 한자어로 바꿈	33	11%	固하다 導하다 背하다 復하다 服하다	견고하다 인도하다 빅척하다 회복하다 탄복하다

8) 앞서 언급하였듯이 4장의 내용은 케이스 스터디의 성격을 갖고, <표 4>에 나타난 수치는 작은 규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표 4>의 수치를 통해 대역 양상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혀 둔다. 국한문과 순한글의 1:1 대역 텍스트에 나타난 번역 양상을 전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 대상에 포함될 자료의 목록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까지 연구에서는 근대 계몽기의 어느 자료에 국한문과 순한글의 대역 텍스트가 실려 있는지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設하다 始하다 養하다 浴하다 切하다	설시하다 시작하다 양육하다 목욕하다 간절하다
기타	19	6%	名하다 歌하다 納하다	덩하다 탄식하다 항복하다
총합	298	100%		

각 유형에 해당하는 용례 수를 비교해 보면 고유어로 바꾼 경우가 가장 많다. 국한문판에 쓰인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을 그대로 순한글판으로 옮기면 의미 변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같은 고유어로 바꾸어 쓴 것으로 보인다. ‘振하다’, ‘進하다’, ‘震하다’는 음을 그대로 읽으면 모두 ‘진하다’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을 ‘떨치다’, ‘나아가다’, ‘놀내다’로 바꾼 것으로 생각된다.

국한문판의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을 2음절 한자어로 바꾼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는 ‘X하다’로 썼을 때보다 ‘XY하다’로 썼을 때 의미가 더 구체화되었다. 예를 들어, 국한문판의 ‘設하다’가 순한글판의 어떤 문장에서는 ‘개설하다’로, 어떤 문장에는 ‘설시하다’로 바뀌어, 순한글판에서 의미가 더 세분화되었다⁹⁾.

한편 상대적으로 그 수는 적었지만 국한문판의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을 그대로 쓴 예도 있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告하다, 動

9) 동사가 아닌 명사에 관한 언급이긴 하지만 배수찬(2008:196)에 2음절 한자어와 관련해 참고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는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 과정에서 1음절 한자어 명사를 자국어로 풀어쓰거나 2음절 한자어로 바꿔 썼는데, 양자는 모두 “귀로 들어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즉, ‘거(據)’라고 하면 귀로 들었을 때 그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를 ‘증거, 근거, 의거’ 등의 2음절 한자어로 쓰면 귀로만 듣고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ᄒ다, 免ᄒ다, 滅ᄒ다, 變ᄒ다, 屬ᄒ다, 連ᄒ다, 爲ᄒ다, 傳ᄒ다, 行ᄒ다’는 모두 지금도 널리 쓰이고 역사적으로도 쓰임이 현저했던 용언들이다. 당시에 이미 어휘 체계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고유어나 다른 단어로 바꾸지 않아도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고하다’라고만 써도 ‘告하다’로, ‘동하다’라고만 써도 ‘動하다’로, ‘면하다’라고만 써도 ‘免하다’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대한매일신보』의 국한문판과 순한글판의 대응 기사를 비교해 본 결과, 3장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동음이의어의 순한글 표기 시 발생하는 의미 해석의 문제가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사용 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순한글로 썼을 때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고유어나 2음절 한자어로 바꾸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을 그대로 사용했던 것이다.

5. 결론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은 중세 국어나 근대 국어에서 매우 광범위한 쓰임을 보이다가 현대 국어로 오며 대부분이 사라졌다. 수백 년간 안정적으로 쓰이다가 짧은 기간 동안,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닌 해당 유형의 대다수가 자취를 감춘 것은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동안 국어학계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역사 자료에 나타난 이들 용언이 우리말 어휘 체계에 존재하던 단어가 아니라 한문의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 한문적 요소에 불과했다고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당대 화자들의 언어 직관 속에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이 존재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최소한 문어에 있어서는

이들 용언이 수백 년 동안 안정적인 쓰임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현대 국어로 오며 갑자기 사라지게 된 원인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세종>의 15~19세기 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통시적 변화 양상을 기술하였다. <세종>에 쓰인 용언 중 현대 국어에 남아 있는 용언은 12% 정도였고 88%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 또한 역사 자료에 나타난 대부분의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은 동음이의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즉, 어기의 한자는 서로 다르지만 한자음은 동일한 용언들이 대다수였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들의 동음이의의 관계가 현대 국어로 오며 이들이 사라지게 된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을 양적·질적 근거를 통해 밝혔다.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던 전통적 글쓰기 방식에서는 동음이의의 관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X하다’에서 ‘X’를 한자로 쓰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체의 현대화 과정에서 순한글 글쓰기가 이루어지면서 ‘X하다’의 ‘X’를 한글로 적게 되자 동음이의어의 의미 해석에 불편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동음이의어군에서 한두 용언이 오늘날에도 활발히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동음이의어 중 하나가 남은 경우와 둘 이상이 남은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15~19세기 자료에서 유독 용법이 두드러진 용언들이었다. 즉, 사용 빈도가 월등히 높고 15~19세기 전 시기에 걸쳐 두루 분포하던 용언이 그렇지 못한 다른 동음이의 관계의 용언들보다 생존율이 높았다. 한편 둘 이상이 남은 경우는 어휘 범주나 격틀, 논항의 특성으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동음이의 관계로 인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처럼 동음이의어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이 남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의미 해석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정되었다. 이 연구의 4장에서 20세기 초기의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과 순한글판에서 내용이 같은 기사 10쌍을 비교한 결과, 국

한문판의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 중 동음이의어로 인한 의미 해석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X하다’ 용언이 순한글판에 그대로 쓰였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고유어나 2음절 한자어로 바뀐 것을 확인하였다.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에 관한 몇몇 기존 연구는 19세기 말 이후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5~19세기의 자료를 분석한 이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의 빈칸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의 의의는 단순히 시기상의 퍼즐 조각을 추가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문체의 현대화 과정’과 ‘실제 언어 현상의 변화’ 사이에 존재했던 또 다른 퍼즐 조각을 찾아낸 것이다. 즉, 순한글 글쓰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이 대거 사라진 직접적인 이유는, 한자를 노출시키지 않았을 때 인지적으로 의미 변별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말 문장에는 어휘·형태·통사의 모든 층위에서 한문의 영향이 존재했다. 그 중에는 문체의 현대화 과정에서 사라진 것도 있고 사라지지 않은 것도 있다. 이 글에서 다룬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경우와 같이 문체의 현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언어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언어 분석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국어학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언어 현상의 분석에 주력해왔고 언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배경에는 관심이 부족한 편이었다. 한편 문학 분야에서는 문체와 관련된 언어 변화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라 해도 언어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밝히는 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각 분야의 연구 풍토나 방법론의 차이에 기인하는 한계일 것이다. 하지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기에 일어난 언어 변화는 두 분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만 온전히 기술되고 설명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본고에서 다룬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경우, 언어내적 관점에서만 접근한다면 도무지 그 변화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국어학자들이 담당해야 할 몫은 언어 환경의 변화가 실제 언어 현상의 변화로 연결되는 지점이 어디였는지 파악하고, 언어 변화를 불가피하게 했던 인지적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제언을 덧붙이며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1999.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 개화기 국어」 서울: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 2007. 「(21세기 세종계획) 국어 특수자료 구축」 서울: 국립국어원.
- 김형철. 1997. 「개화기 국어연구」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 김홍수. 2004. “이른바 개화기의 표기체 유형과 양상.” 「국어문학」(국어문학회) 29. 58-76.
- 민현식. 1994a. “開花期 國語 文體에 대한 綜合的 研究(1).” 「국어교육」(한국어교육학회) 83. 113-152.
- 민현식. 1994b. “開花期 國語 文體에 대한 綜合的 研究(2).” 「국어교육」(한국어교육학회) 84. 101-123.
- 배수찬. 2008.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 과정 연구」 서울: 소명출판.
- 소강춘. 2002. “정보처리 프로그램에 대하여: SynKDP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정보화」(愚山 洪允杓 教授 回甲 紀念 論文集) 서울: 태학사.
- 안예리. 2010.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과 순한글판의 문장 연구: 번역에 따른 형태·통사적 대응 관계.” 「연세학술논집」(연세대학교) 50. 435-474.
- 임상석. 2008.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서울: 지식산업사.
- 한영균. 2008. “現代 國漢 混用 文體의 定着과 語彙의 變化: ‘單音節 漢子+

하(訶)-’형 用言의 경우.” 『국어학』(국어학회) 51. 229-256.

한영균. 2009. “文體 現代性 判別의 語彙的 準據와 그 變化: 1890~1930년대
논설문의 한자어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구결연구』(구결학회) 23.
305-342.

홍종선 외. 2000. 『현대 국어의 형성과 변천 3』 서울: 박이정.

안예리(An, Yelee)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 : 02-2123-2265

전자우편 : yelee.a@gmail.com

원고접수일: 2012. 12. 28

심사완료일: 2013. 01. 23

게재결정일: 2013. 02. 04